



이금재(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축복(3-14절)'과 '저주(16-68절)'라는 두 개의 큰 신학적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두 개념은 종교 영역에서 신적 존재가 다른 신적 존재를, 신적 존재가 인간 또는 동·식물을 포함한 사물을 또는 인간이 신적 존재의 힘을 빌려 다른 인간과 사물 및 동·식물을 대상으로 현 상태보다 나아지는 것(축복)이나 나빠지는 것(저주)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종교적 행위와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¹ 이러한 축복과

1 Maier Bernhard, Art. "Segen/Segen und Fluch, I. Religionsgeschichtlich" (TRE 31; Berlin: Walter de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 생활이나 규칙 그리고 계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축복의 목적이라면, 반대로 이를 어기는 것을 예방하고 어겼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는 것이 저주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본문인 신명기 28장을 포함하여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축복’ 모티브는 보통 ‘축복’을 뜻하는 명사 בָּרַךְ (바룩)과 ‘축복하다’를 뜻하는 동사 בָּרַךְ (바락)과 함께 언급된다.² 이와 달리 ‘저주’ 모티브는 ‘저주’ 또는 ‘저주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면, 동사 אָרַךְ (아라르; 신 27:15-26)와 명사 אָרַךְ (아루르; 창 27:29), 동사 קָלַל (칼랄; 신 23:5)과 명사 קָלָלָה (케랄라; 신 28:15,45), 명사 אָלַל (알라; 욥 31:30) 그리고 동사 כָּבַד (카밥; 민 22:11,17)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³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명기 28장 속 축복 모티브와 축복 모티브가 언급된 다양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며, 20절 이하에서 언급된 다양한 저주 내용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 20장 저주 모티브 연구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본문이 되는 소위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⁴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한 후, 이 조약문의 주요 단락(§)과 신명기 20장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후 신명기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인’, ‘배고픔’ 그리고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 3개의 대표적 아람어 비문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근동 문헌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며, 마지막

으로 신명기 28장에 영향을 준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명기 28장과 고대 근동 문헌 속 ‘축복’ 모티브

(1) 신명기 28장 3-14절 속 축복 모티브

구약 속 ‘축복 모티브’는 왕국 시대 이전 아브라함(창 12:2-3; 15:5-7; 17:3-8), 이삭(창 22:17-18), 야곱(창 28:3-4), 요셉(창 49:25-26)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창 48)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의 축복을 통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왕국 시대에서도 ‘축복’ 모티브는 이스라엘 종교(삼상 2:20; 삼하 6:18) 이외에 제왕 이데올로기(삼상 15:13; 삼하 7:29; 왕상 1:47) 그리고 외교(삼하 8:10)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사용되었다.⁵

이처럼 구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축복 모티브를 신명기 28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두 부분(2절)과 마무리 부분(4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YHWH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 28장에서 언급된 YHWH의 축복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3-6절과 7-13절로 나눌 수 있다. 두 본문 모두 축복의 주체는 YHWH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3-6절은 YHWH를 통한 간접적인 축복이라면, 7-14절은 YHWH가 축복의 주체인 주어로 직접 등장하는 문장 구조상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7-13절과 달리 3-6절의 축복은 정반대의 저주 내용을 담고 있는 15-19절과 대립되는 한 쌍을 이루는 차이점이 있다.⁶ 더 나아가서 3-6절 축복의 내용은 ‘풍요’, ‘후손의 번성’, ‘재산

Gruyter, 2000), 75; Timo Veijola, Art. “Segen/Segen und Fluch, II. Altes Testament” (TRE 31;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77; Martin Leuenberger, Art. “Segen / Segen (AT)” (erstellt: Dez, 2008), www.wibilex.de.

2 Josef Scharbert, בָּרַךְ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811-835가 언급한 것처럼 ‘무를 꿰다’(창 24:11; 시 95:6), ‘문안 인사하다’(창 47:7), ‘하나님을 찬양하다’(시 16:7; 26:12; 34:2; 63:5 등),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다’(왕상 21:10,13; 욥 1:5,11; 2:2,9)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3 저주와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는 Willy Schottroff, *Der Altisraelitische Fluchspruch* (WMANT 3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9-10을 참고하라.

4 Donald J. Wisema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Part I”, *Iraq* 20 (1958), 1-99 (=ANET, 534-541). 국문 번역은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455-471, 원제는 James B.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를 참고하라.

5 Martin Leuenberger, *Segen und Segenstheologien im alten Israel. Untersuchungen zu ihren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n Konstellationen und Transformationen* (ATHANT 90; Zürich: TVZ, 2008), 84.

6 Gottfried Seitz,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Kohlhammer, 1971), 273-277; Eduard Nielsen,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Mohr, 1995), 255; Leuenberger, *윗글* (2008), 358.

증식' 그리고 '안정적인 삶'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과 밀접하지만, 7-13절에서는 현실적인 삶의 축복(11절)도 언급되지만 YHWH의 성민이 되는 축복(9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는 축복, 다른 민족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12절)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축복(13절)이 좀 더 많이 언급된다.

3-6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분명 7-13절 축복의 내용은 좀 더 비현실적이고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⁷ 왜냐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축복의 내용이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사적 그리고 전승사적으로 신명기 28장 축복 모티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축복(3-6절)과 저주(16-19절)가 동시에 언급되는 구조의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의 축복은 여타의 고대 근동의 영향 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고대 근동 문헌 속 '축복 모티브'

신명기 28장 3-6절(그리고 7-13절)과 직접 비교되는 고대 근동의 예를 찾기는 어렵지만,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축복' 모티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문헌 속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두 장르를 꼽으라면 법전과 조약문이다. 첫째, 이신 왕조(Isin-Dynasty)의 리피트-이쉬타르(Lipit-Eshtar: 주전 1934-1924) 법전과 십계명과 구약 율법 연

7 이러한 차이점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Königszeit* (ATD, Erg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348-349는 3-6절의 축복의 내용이 현실적인 이유는 왕국이 존재했던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시아의 예루살렘 중앙 성소화 종교개혁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7절 이하의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본문은 포로기 이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구를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함무라비(Hammurapi; 주전 1793-1750) 법전⁸과 같은 법전(Kodex)이다. 이러한 법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신명기 28장처럼 축복과 저주 모티브가 동시에 언급된다는 것이다. 먼저 리피트-이쉬타르 법전에서는 리피트-이쉬타르의 장수(長壽)와 수메르의 최고의 신 엔릴(Enlil)을 대면할 수 있는 두 개의 축복이 언급되었다.⁹ 함무라비 법전의 맺음말에서 분명하게 태양신 사마쉬(Šamaš)가 함무라비의 지팡이¹⁰를 길게 만들고 그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 안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축복과 함께, 모든 신들의 부신(父神)인 아누(Anu)가 왕국의 영광을 빼앗을 것이며, 함무라비의 지팡이를 부수고 통치자로서의 그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법전에 '축복-저주' 모티브가 기록된 목적은 분명하다. 왕과 왕국의 번영과 같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함께 법전의 내용을 보호하고 준수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법전을 훼손하거나 또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적인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28장 축복 모티브와 신화적 측면이 강조된 종교적 내용(엔릴을 대면하는 축복)과 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내용(왕국 번영)을 담고 있는 법전의 축복 모티브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내용

8 채홍식, "언약법전과 8세기 예언자의 사회비판", 『구약논단』 제6집 (1999), 102-103.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3권 1호 (2017), 190-233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은 구약의 율법 연구 이외에 지혜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Samuel N. Kramer, "Lipit-Ishtar Lawcode", ANET, 161: "be presented with life an breath of long days. may Enlil's bright forehead look down upon him."

10 Rykle Borger, "Der Codex Hammurapi", TUAT I/1 (1982), 77: "der Sonnengott seinen *Stab* lang machen, seine Leute möge er in der Gerechtigkeit hüten. ... Der große Anu, der Vater der Götter, der mich zur Regierung berufen hat, möge ihm den Glanz des Königtums wegnehmen, sein Zepter zerbrechen, seine Geschenke verfluchen".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Stab*)는 보통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적 존재와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고대 근동의 사상 속에서는 이들의 지팡이는 그들의 통치권을 상징하였다. 다양한 문헌 속에서 신과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길고 곧은' 목자의 지팡이로 백성을 통치하는 '목자'로 묘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함무라비의 지팡이를 사마쉬가 길게 만드는 것은 그의 통치 기간이 늘어나는 축복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지팡이가 부서진다는 것은 왕권의 훼손을 상징한다. 이에 대하여는 Keung-Jae Lee, *Symbole für Herrschaft und Königtum in den Erzählungen von Saul und David* (BWANT 210; Stuttgart: Kohlhammer, 2017), 207-209를 참고하라.

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¹

두 번째, 축복 모티브가 언급되는 문헌은 조약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예는 현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 아뮴(Apum)의 왕 킬-아브누(Till-Abnû; 주전 1750년경)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시리아의 왕과 맺은 통상조약문이다.¹² 이후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 1세(Suppiluliuma I.; 주전 1355-1320)가 현 레바논에 위치했던 아무루(Amurr)의 아지루(Aziru), 현 시리아 북부와 아나톨리아 남동부 지역에 위치했던 미타니(Mittani)의 사티와자(Šattiwazza) 그리고 현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누하세(Nuḫašše)의 테테(Tette)와 각각 맺은 3개의 조약문이다.¹³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조약은 축복과 저주 모티브가 동시에 언급된 두 개의 또 다른 히타이트 조약문이다. 첫 번째 조약은 수필룰리우마스 1세(Suppiluliuma I.; 주전 1380-1345)와 우가릿 니크마투 2세(Niqmaddu II.) 사이에 맺은 조약이다.¹⁴ 이 조약문에서는 조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자는 이 조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의 1000명의 신들의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문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조약인 하투실리 3세(Hattusili III.; 주전 1273-1250)와 람세스 2세(Ramses II.; 주전 1290-1224)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전 1274년(?)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오론텐데스강 유역 카데시에서 벌어진 전쟁이 15년 경과한 후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상호 불가침 및 상호 원조 조약인 이 조약문의 내용은 현 터키 보가즈코이(Boğazköy)에서 발굴된 바빌로니아 설형문자 판과 이집트 카르낙(Karnak) 신전 벽면에 기록된 이집트 신성문자 판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 평화조약문 속에서 하투실리와 람세스가 조약을 준수한다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족, 나라와 백성 그리고 관료들의 건강을 약속받는 축복의 내용과 함께, 이를 파기한다면 이 조약에 관여했던 신들에 의해서 왕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이 고대 근동의 법전과 조약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 모티브는 고대 근동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약간의 시간차는 존재하지만 동부 셈족(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부 셈족(히타이트와 아람) 지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왕들의 비문에서도 축복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비문 속 축복 모티브의 특징은 ‘○○ 신이 왕 ○○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문구와 함께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히 언급된다는 것이다.¹⁶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축복의 대상은 비문을 기록한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 그리고 토지의 모든 소산과 가축까지 확대되었으며, 축복의 내용 역시 왕국의 번영과 안녕, 왕의 장수와 건강한 삶, 삶의 기쁨과 백성의 안녕과 풍요 등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문헌에 기록된 종교적 기도문으로 이 또한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기도문은 왕 스스로가 중보자로서(royal prayers) 자신과 왕조의 안녕 그리고 백성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가 숭배하는 신에

11 물론 다윗 왕조의 번영과 같은 정치적 목적하에 언급되는 축복도 분명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Jesper Eidem, "An old Assyrian Treaty from Tell Leilan", D. Charpin / F. Joannès (eds.), *Marchands, diplomates et empereurs. Étudessur la civilisation mésopotamienne offertes à Paul Garell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91), 199, 204-206.

13 이 두 조약문 속 축복 내용은 Ernst F. Weidner, *Politische Dokumente aus Kleinasien. Die Staatsverträge in akkadischer Sprache aus dem Archiv von Boghazköi* (Boghazköi-Studien 8; Leipzig: Hinrichs'sche Buchhandlung, 1923), 각각 33-35, 48-57 그리고 75를 참고하라.

14 Einar von Schuler, "Staatverträge mit dem Hethitherreich", TUAT I/2 (1983), 132, 134. 이외에 히타이트 무르실리 2세(Muršili II.; 주전 1322-1295)가 우가릿 니크메파(Niqmepa)와 (현 레바논의) 아무루 투피-테(Tuppi-Teššup)와 맺은 조약 속에서도 히타이트 조약 전통 속 저주와 축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와 그의 머리(=조상), 아내, 아들과 손자, 땅과 그의 소유 모든 것은 진멸되지만, 준수하는 모든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고 기록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Hans Ulrich Steymans, *Deuteronomium 28 und die adē zu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5), 155-156을 참고하라.

15 Elmar Edel, "Der ägyptisch-hethitische Friedensvertrag zwischen Ramses II. und Hattusili III.", TUAT I/2 (1983), 142-143.

16 프즈르-아수르 3세(Puzur-Aššur III.; 주전 1498-1475)의 비문을 예로 든 Albert Kirk Grayson, *Assyrian Royal Inscriptions. From the Beginning to Ashur-resha-ishi I*. Bd. I (Wiesbaden: Harrassowitz, 1972), 35, § 217와 사르곤 2세(Sargon II.; 주전 721-705)의 비문 속 내용을 예로 든 Andreas Fuchs, *Die Inschriften Sargons II. aus Khorsabad* (Göttingen: Cuvillier Verlag, 1994), 355를 참고할 수 있다.

게 간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⁷

다섯 번째는 상위 신들이 하위 신들 또는 인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신화(Mythos)’¹⁸ 또는 신들을 찬양하는 찬양시(Hymnus)¹⁹이다. 이외에 ‘○○ 신이 ○○를 축복하길 기원합니다’라는 어구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서신문의 머리말에서²⁰ 그리고 신전의 봉헌 비문²¹ 속에서도 신전의 주(主) 신의 축복이 주로 언급된다.

이와 같이 ‘축복’ 모티브는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에서도 확인되는 오랜 전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한 변화를 맞이한다. 즉, 축복의 내용과 분량이 점점 축소되다가 급기야 신아시리아 시대 문헌에서는 생략되고 오직 저주 모티브만 언급된다는 사실이 그 당시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²² 이러한 이유에서 신명기 28장을 포함한 구약의 축복의 모티브는 신아시리아의 영향이 아닌 이전 고대 근동 전역에 존재했던 전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집트 문화에서 ‘축복’ 모티브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Anchsheschonqi의 교훈서(die Lehre des

Anchsheschonqi)’²³와 주후 1세기에 기록된 ‘파피루스 인징어의 교훈서(die Lehre des P. Insinger)’²⁴와 같은 (후기) 지혜문학에서 종종 언급되었을 뿐 이외의 문헌²⁵에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신명기 28장 속 ‘저주’ 모티브

(1) 신명기 28장 저주 모티브에 영향을 준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EST)’

①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에 관한 개요

1955년 영국 고고학자 와이즈만(D. J. Wiseman)은 아시리아 시대에는 칼 후(Kalhu), 현재는 이라크 도시인 님루드(Nimrud)에서 약 350여개의 비문 파편을 발굴하였다. 이후 그는 파커(B. Parker)의 도움으로 이 비문을 해독한 후 아시리아 왕 에사르하돈(Esarhaddon; 주전 681-669)이 주전 672년 당시 주변 속국의 왕들과 맺은 소위 ‘에사르하돈의 종주 조약(The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약어 VTE)’²⁶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조약은 에사르하돈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시리아 봉신(封臣)들이 자신의 두 아들 바빌로니아의 왕 세자 사마쉬-슈-우킨(Šamaš-šum-ukin)과 아시리아의 왕세자 아수르바니팔(Assurbanipal; 주전 669-631)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다짐받는 내용과 이를 거부할 때 임할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문의 성격은 비문 서두에 언급된 아카드어 ‘adē’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

17 아시리아 왕이 2인칭 중보자로 등장하는 예는 Kazuko Watanabe, "Segenswünsche für den assyrischen König in der 2. Person Sg.", *Acta Sumerologica* 13 (1991), 350-352, 362-363과 그녀의 다른 논문 "Segenswünsche für den assyrischen König in der 2. Person Sg. (2)", *Acta Sumerologica* 14 (1992), 370-371 그리고 Rocio Da Riva, *The Neo-Babylonian Royal Inscriptions. An Introduction* (GMTR 4; Münster: Ugarit Verlag, 2008), 97-98을 참고하라.

18 예를 들면, Wilfred G. Lambert, "Enuma Elisch", *TUAT* III/4 (1994), 590와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Die Rephaim-Texte KTU 1,20-I,22", *TUAT* III/4 (1994), 1312를 참고하라.

19 Alan Lenzi, *Reading Akkadian Prayers and Hymns. An Introduction* (ANEM 3; Atlanta: SBL, 2011), 90, 91, 112, 210, 233; Adam Falkenstein / Wolfram von Sode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Zürich: Artemis, 1953), 158, 244, 245, 262, 293.

20 Benno Landsberger, "Das »gute« Wort", *MAOG* 4 (1928-29), 300-301.

21 중서부 셈족 지역(두로, 시돈 등)에 위치한 도시에서 이러한 예는 Manfred Dietrich / Oswald Loretz, "Gründungsurkunde für den Schamasch-Tempel in Mari", *TUAT* II/4 (1988), 501, Christel Butterweck, "Votivgabeninschrift des Prinzen Baalschillem", *TUAT* II/4 (1988), 594, Christel Butterweck, "Weihinschrift auf einem Steinthron an Astarte", *TUAT* II/4 (1988), 595 그리고 Josef Tropper, *Die Inschriften von Zircirli. Neue Edition und vergleichende Grammatik des phonischen, sam'alischen und aramdischen Textkorpus* (ALASP 6; Münster: Ugarit Verlag, 1993), 53을 참고하라.

22 Kenneth A. Kitchen, "The Fall and Rise of Covenant, Law and Treaty", *Tyndale Bulletin* 40 (1989), 129-133.

23 Heinz J. Thissen "Die Lehre des Anchsheschonqi", *TUAT* III/2 (1991), 258-259.

24 Heinz J. Thissen, "Die Lehre des P. Insinger", *TUAT* III/2, (1991), 286, 299, 318.

25 앞에서 언급한 하투실리 3세와 람세스 2세 사이에 맺은 이집트 신성문자 판 조약문 속 축복 모티브는 히타이트 전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Jan Assmann, "Gebet an die Göttin Taweret (19. Dyn., 13. Jh. v. Chr.)", *TUAT* II/6 (1991), 875가 제시한 출산의 여신 타와레트(Taweret)에게 간구하는 기도문에서도 축복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외에 또 다른 예를 찾는 것은 어렵다.

26 Wiseman, *윳클*, 1-99.

다. ‘adē’는 ‘조약’ 또는 ‘서약’을 뜻하는 아카드어 ‘adū’²⁷에서 파생된 용어로 아시리아 시대에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공적인 문서에서만 사용된 정치적 용어였다.²⁸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아시리아 문헌은 주전 8세기 이슈르-니라리 5세(Assurnirari V.; 주전 755-745)가 아르파드(Arpad)²⁹ 왕 마티-엘(Mati-El)과 맺은 소위 ‘중주 조약’³⁰이다. 그리고 티글랏-필레사르 3세(Tiglat-Pileser III.; 주전 745-726) 이후 ‘adē’는 왕의 비문이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외교 문서 속에서 대부분 ‘조약’을 의미하는 ‘riksu/rikiltu’³¹와 함께 언급되면서 ‘조약’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나부-슈마 이슈쿰(Nabû-shuma-iškun; 주전 750-738)이 고위 관료들로부터 충성을 다짐받는 문서³² 속에서 ‘adē’가 ‘서약’을 뜻하는 ‘māmītu(u)’³³와 함께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주전 7세기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자국 관료의 충성을 다짐받는 ‘(충성) 서약’을 의미했다.³⁴ 이처럼 ‘adē’는 주전 8세기에는

‘(중주) 조약’을 의미했다면, 이후 자국 관료의 충성을 요구하는 ‘(충성) 서약’의 개념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처럼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번역되는 ‘adē’를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즈만이 자신이 발견한 에사르하돈 비문을 ‘에사르하돈의 중주 조약’으로 번역한 이후, 이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와이즈만의 이러한 번역을 따르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³⁶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왕위 계승자에 대한 ‘충성 서약(Loyalitätseid/Treueid/Nachfolgeid)’³⁷ 또는 아시리아 봉신들의 충성을 전제한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EST / Succession Treaty of Esarhaddon: STE)으로 번역한다.³⁸ 그러나 이 비문의 내용이 에사르하돈이 새롭게 주변 국가를 정복한 후 새로운 봉신과 맺은 조약이 아니라, 기존 봉신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했을 때 충성을 다짐받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약어: EST)’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27 Wolfram von Soden, “adū I” (AHw 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14.

28 Kazuko Watanabe, *Die adē-Vereidigung anlässlich de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BaghM Beih. 3; Berlin: Gebr. Mann, 1987),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adē’의 종교적 의미, 즉 신적 존재 앞에서 있는 인간의 종교적 서약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29 ‘아르파드’는 알레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다.

30 Simo Parpola / Kazuko Watanabe (Hg.),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2; Helsinki: Helsinki Univ. Press, 1988), XXVII. 이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Rykle Borger, “Der Vertrag Assurniraris mit Mati’ilu von Arpad”, TUAT I/2 (1983), 155-158.

31 Wolfram von Soden, “riksu/riklitu” (AHw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984; “riksu(m)”, 985.

32 John A. Brinkman, “Political Covenants, Treaties and Loyalty Oaths in Babylonia and between Assyria and Babylonia”, Liverani Canfora u.a. (Hg.), *I trattati nel mondo antico: Forma, ideologia, funzione* (Saggi di storia antica 2; Rom L’Erma di Bretschneider, 1990), 96-99.

33 Wolfram von Soden, “māmītu(m)” (AHw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599-600. 또 다른 예는 Hayim Tadmor, “Treaty and Oath i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ian’s Approach.” Gene M. Tucker / Douglas A. Knigh (ed.), *Humanizing America’s Iconic Book. Biblical scholarship in North America 6. Chico* (Chicago: Scholars Press, 1982), 149-150과 Karen Radner, “Assyrische *ṭuppi adē* als Vorbild für Deuteronomium 28,20-44?”, Markus Witte et al. (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355를 참고하라.

34 Radner, 윗글, 358-364는 충성을 서약한 관료에 신전 제사장, 군인, 일반 백성도 포함시켰으며, 서약의 대상 역시, 왕 이외에 왕비와 왕세자를 포함한 왕가(王家)도 포함시켰다. 이외에 Simonetta Ponchia, “The

Neo-Assyrian Adē Protocol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Empire”, Salvatore Gaspa et al. (Hg.), *From Source to History: Studies on Ancient Near Eastern Worlds and Beyond: Dedicated to Giovanni Battista Lanfranchi on the Occasion of His 65th ... 23, 2014* (AOAT 412; Münster: Ugarit Verlag, 2014), 514-520을 참고하라.

35 Moshe Weinfeld, “Covenant Terminolog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ts Influence on the West”, *JAOS* 93 (1973), 191; Radner, 윗글, 353. 반대로 Frank Starke, “Zur urkundlichen Charakterisierung neuassyrischer Treueide anhand einschlägiger hethitischer Texte des 13. Jh.”, *ZAR* 1 (1995), 72는 ‘서약’에서 ‘조약’의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36 Rintje Frankena,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2 (1965), 134-135; Dennis J. McCarthy, *Treaty and Covenant. A Study in Form in the Ancient Oriental Documents and in the Old Testament* (AnBib 21; Rome: Biblical Institute, 1978), 127-132; Rykle Borger, “Die Vasallenverträge Asarhaddons mit medischen Fürsten”, TUAT I/2 (1983), 160; Parpola / Watanabe, 윗글, XXX.

37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로 처음 해석한 학자로 Ignace Jay Gelb, “Review of D. J. Wisema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BiOr* 19 (1962), 162를 꼽는다.

38 Watanabe, 윗글 (1987)은 ‘왕위 계승 서약’에 관한 문서(Esarhaddon’s Succession oath documents: ESOD)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녀의 또 다른 논문인 “Innovations in Esarhaddon’s Succession Oath Document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Documents’ Structure”, *SAAB* 21 (2015), 173-215 그리고 “Prince of the Orient.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 Nakata et al. (eds.), *Prince of the Orient: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Memory of H. I. H. Prince Takahito Mikasa* (Orient Suppl. 1; Tokyo: Shams Company, 2019), 237-257를 참고하라.

타당할 것이다.³⁹

② 신명기 28장 20-44절 저주 모티브에 영향을 준 EST의 저주 모티브

EST가 신명기 28장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문헌에서 언급되는 저주 내용의 유사성 때문이다.⁴⁰ 와이즈만⁴¹이 자신이 EST의 내용을 번역한 이후, 신명기 28장 23-24절에서 언급된 저주의 내용(눗으로 변한 하늘과 철로 변한 땅의 저주와 가뭄에 대한 저주)과 EST의 §§ 63-64의 저주의 내용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EST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와이즈만의 이러한 주장은 얼마 후 보르거(R. Borger),⁴² 모란(W. L. Moran),⁴³ 힐러스(D. R. Hillers)⁴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모로우(W. S. Morrow)⁴⁵와 크라우치(C. Crouch)⁴⁶ 같은 학자들도 신명기 28장과 EST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무엇보다 쨌더(M. Zehnder)⁴⁷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자료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첫째, 왕위 계승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로 기록된 EST와 YHWH 신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39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도 'EST'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40 이외에도 Jörg Jeremias,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WMANT 3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169, Norbert Lohfink, "Gott im Buch Deuteronomium", Joseph Coppens (Hg.), *La Notion biblique de Dieu* (BETL 41; Louvain: Peeters, 1976), 114-115 그리고 Eckart Otto, "Treuheid und Gesetz. Die Ursprünge des Deuteronomiums im Horizont neuassyrischen Vertragsrechts", *ZAR* 2 (1996), 1-5와 같은 신학자들은 EST와 구약의 '계약(=언약) 신학'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41 Wiseman, *룻글*, 26-27.

42 Rykle Borger, "Zu den Asarhaddon-Verträgen aus Nimrud", *ZA* 54 (1961), 191-192.

43 William L. Moran,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BQ* 25 (1963), 83-84.

44 Delbert R. Hillers,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Or 16;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41-42.

45 William S. Morrow, "Cuneiform Literacy and Deuteronomic Composition", *BiOr* 62 (2005), 204-213.

46 Carly Crouch, *Israel and the Assyrians. Deuteronomy, the Succession Treaty of Esarhaddon and the Nature of Subversion* (Ancient Near Eastern Monographs 8; Atlanta: SBL Press, 2014), 47-92.

47 Markus Zehnder, "Building on Stone? Deuteronomy and Esarhaddon's Loyalty Oaths (Part 1).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BBR* 19 (2009), 351-353, 356-359, 369-374.

신명기 28장 사이에는 분명한 기록 목적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신명기 저자는 아시리아 궁중에서 작성된 EST를 접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셋째, 에사르하돈 이후 급속히 쇠퇴하는 아시리아의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서 강력한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봉신에게 요구했던 EST의 권위 역시 필연적으로 잃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EST의 내용을 신명기 저자가 수용했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저주' 모티브라는 주제로 신명기 28장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약 4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나 EST 만큼 신명기 28장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문헌은 없다. 왜냐하면 서너 개 정도의 저주의 내용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여타의 고대근동의 문헌과는 달리, EST와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저주의 내용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분량 역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EST와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언급되는 '저주' 모티브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⁸ 예를 들면, 프란케나(R. Frankena)는 EST § 40의 사마쉬 저주와 § 42의 달바드의 저주를 28-34절과 유사한 부분을 찾은 후, EST 속 나머지 여러 신들의 저주를 28장의 나머지 구절과 비교하였다.⁴⁹ 이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48 이외에 EST § 4와 소위 'canon formula'로 불리는 신명기 13장 1절(한글 성경과 LXX은 신 12:32)과 § 10과 2-6, 7-12절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Eckart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57-88, Bernard M. Levinson,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as the Source for the Canon Formula in Deuteronomy 13:1", *JAOS* 130 (2010), 342-346과 그의 또 다른 저서 "Die neuassyrischen Ursprünge der Kanonformel in Deuteronomium 13,1", Stefan Beyerle / Axel Graupner / Udo Rüterswörden (Hg.), *Viele Wege zu dem Einen. Historische Bibelkritik-Die Vitalität der Glaubensüberlieferung in der Moderne* (BThSt 12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41-50을 그리고 레위키 16장과 19절과 EST §§ 63-64 사이의 유사점에 관한 연구는 Steymans, *룻글*, 284-290을 참고하라.

49 Frankena, *룻글*, 145-150.

EST 속 신들의 저주	신명기 28장
§ 37: 이수르의 저주(후손을 얻지 못함과 단명의 저주)	20절
§ 38: 난립의 저주(각종 질병의 저주)	29b절
§ 39: 신의 저주(각종 질병의 저주와 유랑함의 저주)	27절
§ 40: 사마쉬의 저주(불의와 불공정한 판결의 저주)	28절
§ 41: 니누르타의 저주(주검으로 가득한 들판의 저주)	26절
§ 42: 달바드(=비너스)의 저주(여자들의 욕보임의 저주)	30-34절
§ 47: 아다드의 저주(흉년, 얻지 못함과 식인 저주)	38-57절
§ 48: 이쉬타르의 저주(배전의 저주)	25절
§ 49: 네르갈의 저주(역병의 저주)	21절
§ 52: 굴라의 저주(질병의 저주)	35절

이외에 맥카시(D. J. McCarthy)⁵⁰는 23-24절과 §§ 63-64 그리고 26-30절과 §§ 39-42 그리고 와인펠드(M. Weinfeld)⁵¹는 27-29절과 §§ 39-40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⁵²

이와 같은 비교는 분명 신명기 28장과 EST와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ST §§ 37-52에서 기록된 저주 내용을 기준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저주를 나열하면 두 문헌 사이의 저주 내용 순서는 일치하지 않고 뒤트려 있다. 이러한 순서의 불일치는 EST의 영향을 받아 신명기 28장 20절 이후의 저주 모티브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스테이만스가 제시한 § 56 전체와 20-44절을 비교해보면 저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용된 순서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은 두 문헌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⁵³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의 저자가 EST를 알지 못했다면 20-44절의 저주의 내용과 §

56에서 언급된 저주의 내용이 유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 나열된 순서가 결코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테이만스가 제시한 다음의 표로 두 문헌에서 언급된 저주의 유사성을 요약할 수 있다.

EST § 56, 472-493 행	저주의 내용	신 28:20-44
472-475 행	일반적인 저주 선포하는 신(神)	20a절
476-479 행	죽음과 추방	20b, 21절
479-481 행	(기근)과 질병	22(+ 23-24)절
481-483 행	전쟁과 폐허	25a절
483-484 행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시체	26절
	질병	(27절)
485-486 행	흑암과 불의	28, 29a절
487 행	고난과 압제	29b절
488 행	적군의 침략(과 이후의 영향)	30-32절
	1. 요약: 얻지 못함과 배고픔의 저주	33a절
489 행	고난과 압제	33b절
490 행	질병	34-35절
490 행	음식	38절
491 행	음료	39절
491 행	기름부음	40절
(492 행	의복	
	(자녀	41절)
	2. 요약 (얻지 못함과 배고픔의 저주)	42절
493 행	거주지 내 이방인들의 유입	43-44절

③ 신명기 28장 53-57절 속 '식인' 저주 모티브에 영향을 준 EST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저주 중 EST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예는 53-57절에서 YHWH로부터 받을 진노 중 하나로 소개되는 '식인'(食人/Cannibalism) 저주이다. 이 저주는 EST §§ 47, 69, 75, 76에서 아다드와 사마쉬의 저주로 소개된다.

50 McCarthy, 위글, 175.

51 Moshe Weinfeld, "Traces of Assyrian Treaty Formulae in Deuteronomy", *Bib* 46 (1965), 417-427.

52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Steymans, 위글, 2-3에서 언급된 문헌을 참고하라.

53 물론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존재한다. 479 행의 기근의 저주는 22절에서, 반대로 23절 이하에 언급되는 가뭄의 저주는 이어지는 행에서 각각 언급되지 않으며, 27절에서 언급된 다양한 질병의 저주에 상응하는 행도 없다. 또한 33a절과 42절에 언급되는 얻지 못함과 배고픔의 저주는 § 56에서 언급되지 않고, 492 행의 의복과 41절의 자녀와 관련된 저주 사이의 유사성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ymans, 위글, 301-312는 이와 같은 두 자료의 유사성은 다른 문헌 비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uniqueness", 즉,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09).

신명기 28	EST ⁵⁴	
<p>^{53b}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p> <p>^{55a}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p> <p>^{57a}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p>	§ 47 449-450 행	너희 배고픔으로 인해 너희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며 결핍과 기근으로 인해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살을 먹게 되며
	§ 69 547-550 행	그 (사마쉬)가 너희가 너희 형제 자녀들의 살을 먹도록 만들 것이다.
	§ 75 569 행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의 피가 너희 입에서 달게 될 것이다.
	§ 76 571-572 행	너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의 살과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 식인 저주는 때때로 흉년으로 인한 기근 모티브와 함께 언급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인 저주는 기근 저주 없이 별개의 전승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⁵⁵ 첫 번째는 조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파기할 때 조약문에서 맹세한 신의 진노로 식인 저주를 선포하는 조약 문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아슈르-나라리 5세와 마타-엘과 맺은 '종주 조약'⁵⁶에서 식인 저주는 폭풍우의 신 아다드의 저주 중 하나였다. 두 번째는 타 국가와 전쟁 시 상대 도시를 함락시킨 내용을 기록한 왕의 승전 비문이다. 주전 667-664년 사이에 있었던 에사르하돈의 아들 아수르바니팔(Assurbanipal; 주전 669-631)의 이집트 원정을 기록한 소위 "The Rassam Cylinder"⁵⁷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전쟁 비문이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기록되었지만, 식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실제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이러한 저주 모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과장되게 묘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⁵⁸ 이와 같은 신의 진노와 도시 함락으로 인한 식인 저주 모티

54 프리처드, 윗글. 465,468-469.

55 Klaus Grünwaldt, *Das Heiligkeitsgesetz Leviticus 17-26. Ursprüngliche Gestalt, Tradition und Theologie* (BZAW 271;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359-360.

56 Borger, 윗글 (1983), 156: "Sie mögen das Fleisch ihrer Söhne und ihrer Töchter essen."

57 Manfred Weippert, "Die Kämpfe des assyrischen Königs Assurbanipal gegen die Araber.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des Berichts in Prisma A", *WO* 7 (1973), 45-46.

58 Delbert R. Hillers, "History and Poetry in Lamentation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s* 10 (1983).

브는 YHWH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레 26:29; 겔 5:10)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구약의 다른 본문(왕하 6:28-29; 렘 19:9; 애 2:20; 4:10)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EST를 포함한 아시리아 문헌과 구약을 제외하고 이러한 저주 모티브를 언급한 다른 지역의 문헌을 확인할 수 있을까? 외밍(M. Oeming)은 주전 약 83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디아 왕국의 킬라무와(Kilamuwa) 석비⁵⁹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도 식인저주 모티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통 '내가 나의 수염을 먹고 나의 손을 먹는 것처럼, 나는 왕들의 압제하에 있다.'⁶⁰라고 번역되지만, 외밍은 '수염'을 '노인'을 상징하는 단어, 즉 '내가 나의 노인을 먹고 …….'로 번역함으로 식인저주 모티브와 연관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¹ 그러나 그의 이러한 번역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⁶²

이처럼 지금까지 식인 저주 모티브가 언급된 고대 근동의 문헌은 오로지 EST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을 아시리아 문헌뿐이다. 결국 신명기 28장의 저자는 '식인 저주' 모티브를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영향 없이 아시리아의 조약 전승의 영향을 받은 EST를 통해서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⁶³

(2) 신명기 28장 속 '얻지 못함'의 저주에 영향을 준 3개의 아람어 비문

이 단락에서는 EST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저주 모티브와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기록된 다음의 3개의 아람어 비문에서 언급된 저

155-159.

59 옛 이람 북서부 지역의 소국(小國)으로 현재 터키에 속한 Zincirli에서 발굴된 페니키아어 석비이다.

60 Hans-Peter Müller, "Die Inschrift des Königs Kilamuwa von JDI(Sam'al)", *TUAT* I/6, (1985), 638.

61 Manfred Oeming, "Ich habe einen Greis gegessen". Kannibalismus und Autophagie als Topos der Kriegsnotschilderung in der Kilamuwa-Inschrift, *Z. 5-8,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N* 47 (1989), 99.

62 예를 들면, Tropper, 윗글, 36.

63 Steymans, 윗글, 352; Hillers, 윗글 (1983), 159.

주 모티브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언급할 것이다. 첫 번째 비문은 1979년 현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 위치한 텔-파카리아(Tell-Fecherije)에서 발굴된 조각상⁶⁴ 위에 약 주전 830년경에 아람어와 아카드어(아시리아어)로 기록된 비문이며, 두 번째 비문은 현 시리아 알레포(Aleppo)에서 1930년 발굴된 Ktk⁶⁵의 왕 바르-가야(Bar-Gaja)와 아르파드(Arpad)의 왕 마티-엘(Mati-El) 사이에 맺은 소위 ‘세피레 비문’(Sefire steles; Sefire I, II, III.)로 불리는 조약문이다. 아마도 주전 8세기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비문은 1985년 현 이란의 북서쪽 국경 지역에 위치한 부칸(Bukān)에서 발굴된 석비⁶⁶로 약 주전 8세기 중·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텔-파카리아 비문	세피레 비문	부칸 석비
<p>¹⁶⁻¹⁷누군가 하다와 그의 아내 살라의 성전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제거하는 자는 그의 손에서 떡을 짓고 마실 것을 빼앗을 것이다, ¹⁸⁻¹⁹그는 씨를 뿌리나 추 수하지 못할 것이며, 1000 세아의 보리를 심었지만 반 세아의 보리를 추수할 것이다. ²⁰⁻²¹100 마리 암양이 한 마리 새끼에게 젖을 물리며, 백 마리의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²²100명의 여인이 한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0명의 여인이 한 오픈에 빵을 굽길 원하지만 오픈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⁶⁷</p>	<p>Sefire I A: ²¹⁻²³7마리 숫양이 한 마리 암양과 교미하지만 임신하지 못할 것이며, 7명의 유모가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7마리 암말이 한 마리 망아지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7마리 암소가 한 마리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7마리 암양이 한 마리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²⁶⁻³⁰7년 동안 메뚜기와 애벌레가 ... (마티-엘의) 땅위의을 먹을 것이다. 폴도 자라지 않을 것이며, 잎도 자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p> <p>Sefire II A: 7마리²..... 한 마리....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7마리 염소가 한 마리 새끼 염소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⁶⁸</p>	<p>⁶⁵⁻⁶⁹7마리 암소가 유일하게 남은 한 마리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⁷⁻⁸⁹7명 여인이 유일하게 남은 한 오픈에 빵을 굽길 원하지만 오픈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⁸⁻⁹⁹불의 연기와 맺들 낚 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⁶⁹</p>

위 3개 비문에서 언급된 공통된 저주의 내용은 주린 배를 채우려 하지만 채우지 못하고, 얻고자 노력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저주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독일어 문헌에서는 ‘Nichtigkeitsflüche (des Sättigungsverlustes)’ 또는 ‘antithetische Flüche’로 영어 문헌에서는 ‘futility curse’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주를 각각 ‘배고픔’(두꺼운 글씨로 표기)과 ‘얻지 못함’(두꺼운 이탤릭체로 표기)의 저주로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배고픔’의 내용은 일정한 숫자 비율과 비유를 통

64 조각상의 주인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गुजान(Guzana) 총독으로 임명된 하다-이시(Hadad-yis'i)이다.

65 ‘Ktk’에 대한 지형학적 정보의 부재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66 Nebe, G. Wilhelm, “Bemerkung zur alt-aramaischen Inschrift aus Bukan”, *Mediterranean Language Review* 15 (2003-2004), 181-183이 주장한 것처럼 이 석비가 지역적으로 동부 셈족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지역에서 발견된 여타의 조약문서의 형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아람 지역의 문헌과 유사하게 때문에 아람 지역 조약 전통을 토대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7 Wilhelmus C. Delsman, “Die Statue von Tell Fecherije”, *TUAT* 1/6 (1985), 637.

68 Otto Rössler, “Die Verträge des Königs Bar-Ga’yah von Ktk mit König Mati’-II von Arpad (Stelen von Sefire)”, *TUAT* 1/2 (1983), 180, 184.

69 Ingo Kottsieper, “Eine altaramäische Inschrift aus Bukn”, Bernd Janowski / Gernot Wilhelm (Hg.) (*TUAT.NF 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2005), 313.

해서 저주의 내용을 극대화한다면, ‘언지 못함’의 저주는 실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흉년과 기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승사적으로 두 저주 모티브의 기원 연대를 비교한다면 배고픔의 저주 모티브가 처음으로 언급된 문헌은 이곳에서 언급된 3개의 아람어 비문이지만,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는 이미 주전 1500년경 텔레피누(Telepinu)에 관한 히타이트 신화⁷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는 히타이트 시대의 여러 문헌의 존재는 이 저주 모티브가 이 지역에서 유래했음을 증명해 준다.⁷¹ ‘언지 못함’의 저주는 히타이트의 멸망(주전 1180년) 이후 이 지역에 등장한 소규모 독립 도시 국가(루비어, 후리, 카르케미시)⁷²를 거쳐 이웃 국가인 아람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다룬 아닌 3개의 아람어 비문이 제시하고 있다.

3개의 아람어 비문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배고픔’의 저주는 한 세기 이후(주전 7세기 중·후반) 아수르바니팔 시대의 두 문헌에 언급된다. 첫 번째 문헌은 아수르바니팔이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편지글⁷³이며, 두 번째 문헌은 아수르바니팔의 연대기⁷⁴이다. 이 두 문헌에서도 7대 1' 비율의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과 EST에서는 3개의 아람어 비문에서 언급된 2개의 저주 중 공통적으로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만을 확인할 수 있다.

70 Einer von Schuler, "Notzeit", Hans Wilhelm Haussig (Hg.), *Wörterbuch der Mytholog*, Bd.I (Stuttgart: Klett-Cotta, 1965), 188-189. "Verschwundene Gottheiten", 207-208. '텔레피누' 신화에 따르면 제국의 최고의 신 타루(Taru)와 모신(毋神) 아리나(Arinna)의 아들인 텔레피누는 세상에 대한 노여움으로 모든 농작물을 파괴함으로써 세상에 기근과 가뭄의 저주를 내렸다.

71 Podella, *릿글*, 438-439.

72 *릿글*, 438-441에서 각각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73 Weippert, *릿글*, 82.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 마리 낙타 새끼,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 송아지 그리고 한 마리 어린 양이 7마리 어미젖을 먹지만, 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74 Daniel David Luckenbill, "Campaign against the Arabs. The Cylinder C", ANET, 300: "Even when the camel foals, the donkey foals, calves or lambs sucked seven times on the mother animals, they could not satiate their stomachs with milk."

신명기 28장	EST	
31 ^대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33 ^대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38-40 ^대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별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2 ^대 네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 42 430 행	너희 아들들이 너희 집의 소유를 언지 못하며 외국의 적이 너희 소유를 나누게 될 것이다.
	§ 47 443- 446 행	땅의 (소산을) 줄어들게 하는 메뚜기가 너희 작물을 [집어삼키게] 할 것이며 너희 집에 멧돌이나 화덕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할 것이며 뿔아야 할 보리를 사라지게 하여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언지 못함’의 저주 역시 여타의 저주 모티브처럼 EST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아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아모스,⁷⁵ 호세아 그리고 미가와 같은 8세기 예언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암 5:11).”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호 4:10a).”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미 6:14-16).”

이외에 주전 8세기 중·후반 이후에 기록된 본문(암 4:8; 8:12; 미 3:4a; 학 1:6; 습 1:13 등)에서도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⁷⁶ 이는 다음의

75 최중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범주로서 아모스 읽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제24권 3호 (2018), 220-221은 세피레 비문 (I. A.)의 저주 내용이 아모스 1-2장 속 이방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YHWH 신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76 그러나 숫자 비율을 통한 ‘배고픔’의 저주가 언급된 유일한 본문은 레위기 26장 26절이다. 이곳에서 ‘배고픔’의 저주는 ‘언지 못함’의 저주와 동시에 언급된다. “.....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첫째, 신명기 28장의 ‘언지 못함’의 저주는 EST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8세기 이후의 문서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신명기 28장 속 ‘언지 못함’의 저주에서도 아람 전승과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아람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8세기 이후의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⁷⁷

아마도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 역시 이러한 아람 전통을 받아들였을 것이며, 이후 EST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과정에 부칸 석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부칸 석비는 3개의 아람어 비문을 시대 순으로 나열했을 때에는 마지막에, 지리적으로 나열했을 때에는 서부 셈족 지역에서 동부 셈족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석비가 발굴된 부칸은 아람과 아시리아 국경 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 셈족(아람)의 문화와 동부 셈족(아시리아)의 문화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다. 결국 부칸 석비를 통해서 아람의 ‘언지 못함’의 저주가 아시리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⁷⁸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어떻게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영향이 아닌 아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그 답을 8세기 중-후반이라는 시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 팽창에 대항했던 반아시리아 연합이 결성된 시기였다. 즉, 아람과 함께 반아시리아 연합 전쟁인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주전 734-733)’에 참전한 북 왕국

에 이러한 아람 전승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⁷⁹ 둘째, 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아람 전승을 수용했을까? 티글랏-필레샤르 3세가 주전 740년 아람 북부 지역을 점령을 시작하고, 720년 사르곤이 아람을 정복한 이후 아람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실제적으로 아시리아 관료들 사이에서 아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아람어로 기록된 아시리아 관료들의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⁸¹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사실은 신명기 28장에서는 비록 확인되지 않지만 ‘언지 못함’의 저주가 이후에 구약만의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분명 여타의 고대 근동 문화처럼 ‘언지 못함’의 저주는 YHWH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YHWH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제3 이사야(62:9; 65:21)에서는 ‘다시 얻음’이라는 축복 모티브로 재해석되었다. 아마도 포로기 이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려는 신학적 의도일 것이다. 이러한 저주 모티브의 재해석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3) 신명기 28장 ‘저주’ 모티브에 영향을 준 EST의 삶의 자리

전체 EST의 저주 내용(§§ 38A-105) 전체를 논문 분량의 한계로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언지 못함’의 저주와 같은 일부 아람 저주 모티브를 제외하고 신명기 28장 저주 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77 이와 달리 Melissa Ramos, “A Northwest Semitic Curse Formula. The Sefire Treaty and Deuteronomy 28”, *ZAW* 128 (2016), 209-216은 3개의 아람어 비문, EST와 아수르바니팔의 편지글 그리고 신명기 28장 38-39절 사이의 저주의 내용(Thema), 어휘(Vocabulary) 그리고 문장 구조(Syntax)의 유사성을 근거로 아시리아를 통한 직접적인 유입을 주장하였다.

78 그렇다면 왜 3개의 아람 비문에서 등장하는 ‘배고픔’의 저주가 8세기 이후의 예언서와 신명기 28장 그리고 EST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가? 첫째, 아람이 아닌 옛 히타이트의 전승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냐?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큰 여백이 존재한다. 둘째, 이들 문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언지 못함’의 저주만을 기록한 그러나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또 다른 아람 전승이 존재하는가? 아마도 두 번째 답이 좀 더 가능성 있는 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79 Thomas Podella, “Notzeit-Mythologem und Wichtigkeitsfluch”, Bernd Janowski / Klaus Koch / Gernot Wilhelm (Hg.),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Internationales Symposium Hamburg 17.-21. März 1990* (OBO 129;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3), 444-446. 이러한 아람 전승이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전후 이스라엘에 유입될 가능성을 Herbert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Von der Königszeit bis zu Alexander dem Großen* (ATD.Erg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334-346 역시 주장하였다.

80 Podella, *윗글*, 437-438.

81 Mario Liverani, “Shamshi-ilu, Ruler of Hatti and Gutu, and the Sefiré and Bukan Stele”, Daniela Bredi et al. (eds), *Scritti in onore di Biancamaria Scarcia-Amoretti* (Rome: Università di Roma, 2008), 752-762.

문헌이 EST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⁸² 그리고 이러한 EST의 저주 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전승은 식인 저주 모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리아의 전승이다.⁸³ 이외에도 (22절과) § 39, (29절과) § 40 그리고 (30절과) § 42에서 각각 순서대로 언급되는 ‘피부병-어둠의 저주-결혼한 여자에 대한 육보임’의 저주는 아시리아 전승에서 널리 퍼져 있던 태양신 사마쉬와 월신 신(Sin)의 저주 내용 및 순서가 매우 유사하다.⁸⁴ 그러나 이렇게 EST와 아시리아 전승에서 확인되는 저주 모티브 대부분은 이미 여타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확인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7-29절에서 언급된 저주 내용은 여러 신들(아누, 신, 사마쉬, 니누르타)이 내린 질병, 곤궁, 불공평, 불의, 제명, 눈멀, 귀먹음 그리고 마비와 같은 저주를 기록한 EST §§ 38A-40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EST §§ 38A-40의 저주 목록은 카사이트 시대의 바빌로니아 토지 경계석⁸⁵ 위에 기록한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아시리아 전승에서만 확인되는 아시리아 저주 모티브와 여타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아시리아 저주 모티브의 영향을 받은 EST가 신명기 28장 저주 내용 및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⁸⁶

82 그러나 Meir Malul, *The comparative method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legal studies* (AOAT 227; Kevelaer: Butzon & Bercker, 1990), 90-91과 같은 학자는 고대 근동에서 존재했던 전승이 먼저 아시리아에 유입되었고 이후에 다시 아람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아람 전승의 영향을 부정하였다. 이외에도 몇몇 학자들은 강대국 아시리아가 아람과 조약을 맺는 경우 아카드어로 먼저 기록된 후 이후에 아람어로 기록되는 과정에 아시리아 전승이 아람 지역에 유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Steymans, 윗글, 41-49, 191-193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라.

83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67-68.

84 윗글, 118-129.

85 Steymans, 윗글, 143-149에서 다음과 같은 마르둑-아플라-이디나 1세(Marduk-apla-iddina I.: 주전 1171-1159) 시대 (B.1159.5와 1159.6), 느부갓네살 1세(주전 1126-1105) 시대 (B.1105.1), 마르둑-사픽-제리(Marduk-sapik-zeri: 주전 1082-1070) 시대 (B.1070.1) 그리고 마르둑-아헤-에리바(Marduk-ahhe-eriba: 주전 1047) 시대(B.1047.1)의 또 다른 경계석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86 Levinson, 윗글 (2012), 36와 같은 학자는 EST 이전에 이미 아시리아의 다양한 저주 전승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전 8세기 말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때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유다 왕 아하스(왕하 16:7) 때 아시리아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둘째, 주전 7세기로 산헤립의 봉신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였다. 에사르하돈의 아버지 산헤립 역시 정복한 봉신들과 충성을 요구하는 ‘adē’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아시리아 저주 전승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많은 영향을 준 EST는 어떠한 형태로 전해졌을까? 아마도 단순히 구두로 유다에 전해졌을 가능성보다는 문서 형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많은 저주의 내용이 언급된 EST § 56과 신명기 28장 20-44절 사이의 저주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그 순서의 유사성은 참고했을 문서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라드너(K. Radner)⁸⁷는 이러한 문서의 존재 가능성을 신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의 봉신 또는 고위 관료와 ‘adē’를 체결할 때 ‘tuppi-adē’이라고 불리는 토판(tuppi) 위에 기록하는 전통에서 찾았다. 또한 그는 EST의 ‘tuppi-adē’ 역시 EST를 체결하기 위해서 에사르하돈이 수도 칼후에 소환한 봉신들에게⁸⁸ 사본 형태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EST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저주 내용 속에서 YHWH 신앙에 근거한 신명기 저자만의 또 다른 신학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ST §§ 59-67에서도 확인되는 신아시리아의 저주 전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주술적 제의 저주’(rituelle Flüche) 형식의 저주 모티브를 신명기 28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⁸⁹ 여기서 언급된 ‘주술적 제의적 저주’란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실제 제의 의식에서 다양한 주술적 행위와 함께 선포되는 저주를 의미한다.⁹⁰ EST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신명기 28장 저자가 이러한 저주 모티브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구약 내에서 주술과 마술하는 자를 엄격히 금하는 YHWH 신앙의 근본적 원칙(레 19:31; 신 18:10, 11, 14; 왕하 23:24; 미 5: 12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87 Radner, 윗글, 367-378, 무엇보다 375.

88 그 당시 유다 왕 므낫세 역시 그곳에 소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비고: 대하 33:11).

89 Seitz, 윗글, 397-400.

90 매와 독수리(§ 59), 샘물과 기름(§§ 60-61), 제의 음식(§ 62), 벽돌과 다양한 농기구(§§ 63-68) 그리고 제의 예물(§ 69)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주술적 제의’를 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나가는 말

서론 부분(1-2절)을 제외하고 신명기 28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YHWH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받는 축복(3-6절 + 7-13절)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규범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저주(16-19절 + 20-68절)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16-19절에서 언급된 저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저주 내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6-19절에서 언급된 저주의 내용은 3-6절에서 언급된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명기 28장을 연구할 때 많은 학자들처럼 본 연구에서도 20절 이하의 저주 내용을 구분해서 언급하였다.

신명기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근동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형식의 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먼저, 축복 모티브는 고대 근동의 다양한 종류의 문헌을 통해서 고대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축복 모티브를 여타의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을 대면할 수 있는 신화적 내용이나 왕권 강화와 왕국의 번영과 같은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 근동의 축복의 내용과는 달리 신명기 28장은 지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 모티브의 전체 분량이 저주 모티브의 분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문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축복 모티브가 신아시리아 시대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점점 축소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추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비교한다면, 신명기 28장은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신명기 28장이 최종 편집되었을 왕국 멸망 이후 이스라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고려가 반영되었을 것이다.⁹¹ 즉, 왕국 멸망을 통해서 YHWH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려는 최종 편집자의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축복 모티브처럼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다양한 저주 모티브 내용도 다양한 고대 근동 지역과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명기 28장 20-44절과 EST § 56 사이의 저주 내용과 그 순서의 유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ST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문헌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EST 역시 아시리아 전승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 47, 69, 75, 76에서 언급된 '식인' 저주 모티브는 아시리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EST가 신명기 28장(53, 55, 57절)에 영향을 주었으며, 주전 9세기와 8세기 사이에 아람어로 기록된 3개의 비문(텔-파카리아 비문, 세피레 비문 그리고 부칸 석비)에서는 신명기 28장 31, 33, 38-40, 42절에 영향을 준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주 모티브는 주전 1500년경 기록된 히타이트 신화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언지 못함'의 저주 모티브는 히타이트 멸망 이후 그 지역에 등장한 소규모 도시 국가를 거쳐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람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주전 8세기 후반 반아시리아 연합에 참여한 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8세기 북 왕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암 4:8; 5:11)와 호세아(4:10)의 심판 속에 이미 '언지 못함'의 저주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91 본 연구에서 신명기 28장의 편집 과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Steymans, 윌글, 377-383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EST § 56의 영향을 받은 20-44절은 일부 후대에 첨가된 본문들(예를 들면, 20b, 25b, 26-27절)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이후에 축복문(7-13절), 일부 저주문(21b절) 그리고 결론 부분(신 29:1)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 EST와 관련 없는 15, 16-19절의 저주문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본문 중에서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편집된 2b, 14, 20b, 25b, 36-37, 45-57, 62-68절과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이 언급된 58-61절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이 20-44절의 저주의 내용이 상당히 오래된 본문(왕국 멸망 이전)이라는 스테이만스의 주장은 '언지 못함'의 저주 내용(31a, 33a, 38-40, 42절)은 8세기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각주 79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스테이만스가 왕국 멸망 이후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주의 내용 역시 유다 왕국의 멸망 상황, 즉 땅을 빼앗기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첨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왕국 멸망 이후 땅과 연관된 축복 모티브를 첨가한 것 역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에 희망을 제시하려는 편집자의 편집 의도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주 7의 내용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영향을 받은 EST가 신명기 28장의 저주 모티브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속 저주 모티브 속에서도 신명기 28장만의 신학적 재해석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EST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술적 제의' 저주(§§ 59-67)를 신명기 28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주술과 마술을 엄격히 금하는 YHWH 종교만의 속성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명기 28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언지 못함'의 저주가 '다시 얻음'의 축복으로 재해석한 신학적 시도는 앞서 언급한 축복 모티브처럼 왕국 멸망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YHWH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신명기 28장과 다양한 고대 근동 문헌 사이의 축복과 저주 내용의 유사성과 신명기 28장에 영향을 준 고대 근동 문헌의 삶의 자리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을 포함한 구약만의 신학적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주요 인용 참고문헌:

ANET: Pritchard, James Bennett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TUAT: Kaiser, Otto u. a. (Hg.),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s*, Bd. I-II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2-1997).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3권 1호 (2017), 190-233.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원저 James B.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채홍식, "언약법전과 8세기 예언자의 사회비판", 「구약논단」 제6집 (1999), 91-123.

최종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범주로서 아모스 읽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제24권 3호 (2018), 201-229.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Königszeit* (ATD.Erg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Assmann, Jan, "Gebet an die Göttin Taweret (19. Dyn., 13. Jh. v. Chr.)", TUAT II/6 (1991), 875-876.

Bernhard, Maier, Art. "Segen/Segen und Fluch, I. Religionsgeschichtlich" (TRE 31;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75-76.

Borger, Rykle, "Zu den Asarhaddon-Verträgen aus Nimrud", ZA 54 (1961), 173-196.

Borger, Rykle, "Der Codex Hammurapi", TUAT I/1 (1982), 39-80.

Borger, Rykle, "Der Vertrag Assurniraris mit Mati'ilu von Arpad", TUAT I/2 (1983), 155-158.

Borger, Rykle, "Die Vasallenverträge Asarhaddons mit medischen Fürsten", TUAT I/2 (1983), 160-176.

Brinkman, John A., "Political Covenants, Treaties and Loyalty Oaths in Babylonia and between Assyria and Babylonia", Liverani Canfora u. a. (Hg.), *I trattati nel mondo antico: Forma, ideologia, funzione* (Saggi di storia antica 2; Rom L'Erma" di Bretschneider, 1990), 81-111.

Butterweck, Christel, "Votivgabeninschrift des Prinzen Baalschillem", TUAT II/4 (1988), 594.

Butterweck, Christel, "Weihinschrift auf einem Steinthron an Astarte",

- TUAT II/4 (1988), 595.
- Christiansen, Birgit / Devecchi, Elena, “Die hethitischen Vasallenverträge und die biblische Bundestheologie”, *BN.NF* 156 (2013), 77-79.
- Crouch, Carly, *Israel and the Assyrians. Deuteronomy, the Succession Treaty of Esarhaddon and the Nature of Subversion* (Ancient Near Eastern Monographs 8; Atlanta: SBL Press, 2014).
- Delsman, Wilhelmus C., “Die Statue von Tell Fecherije”, TUAT I/6 (1985), 634-637.
- Dietrich, Manfred / Loretz, Oswald, “Gründungsurkunde für den Schamasch-Tempel in Mari”, TUAT II/4 (1988), 501-504.
- Dietrich, Manfred / Loretz, Oswald, “Die Rephaim-Texte KTU I.20-I.22”, TUAT III/4 (1994), 1306-1315.
- Donner, Herbert,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Von der Königszeit bis zu Alexander dem Großen* (ATD. Erg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Edel, Elmar, “Der ägyptisch-hethitische Friedensvertrag zwischen Ramses II. und Hattusili III.”, TUAT I/2 (1983), 135-152.
- Eidem, Jesper, “An old Assyrian Treaty from Tell Leilan”, D. Charpin / F. Joannès (eds.), *Marchands, diplomates et empereurs. Études sur la civilisation mésopotamienne offertes à Paul Garell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91), 185-208.
- Falkenstein, Adam / Soden, Wolfram vo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Zürich: Artemis, 1953).
- Frankena, Rintje,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2 (1965), 122-154.
- Fuchs, Andreas, *Die Inschriften Sargons II. aus Khorsabad* (Göttingen: Cuvillier Verlag, 1994).
- Gelb, Ignace Jay, “Review of D. J. Wisema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BiOr* 19 (1962), 159-162.
- Grayson, Albert Kirk, *Assyrian Royal Inscriptions. From the Beginning to Ashur-resha-ishi I.* Bd. I (Wiesbaden: Harrassowitz, 1972).
- Grünwaldt, Klaus, *Das Heiligkeitsgesetz Leviticus 17-26. Ursprüngliche Gestalt, Tradition und Theologie* (BZAW 271;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 Hillers, Delbert R.,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Or 16;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 Hillers, Delbert R., “History and Poetry in Lamentation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s* 10 (1983), 155-161.
- Jeremias, Jörg, *Kult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WMANT 3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 Kitchen, Kenneth A., “The Fall and Rise of Covenant, Law and Treaty”, *Tyndale Bulletin* 40 (1989), 118-135.
- Kottsieper, Ingo, “Eine altaramäische Inschrift aus Bukn”, Bernd Janowski / Gernot Wilhelm (Hg.) (TUAT.NF 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2005), 312-314.
- Kramer, Samuel N., “Lipit-Ishtar Lawcode”, James B, *ANET*, 159-161.
- Lambert, Wilfred G., “Enuma Elish”, TUAT III/4 (1994), 565-602.
- Landsberger, Benno, “Das »gute« Wort”, *MAOG* 4 (1928-29), 294-321.
- Lee, Keung-Jae, *Symbole für Herrschaft und Königtum in den Erzählungen von Saul und David* (BWANT 210; Stuttgart: Kohlhammer, 2017).
- Lenzi, Alan, *Reading Akkadian Prayers and Hymns. An Introduction* (ANEM 3; Atlanta: SBL, 2011).

- Leuenberger, Martin, Art. "Segen / Segen (AT)" (erstellt: Dez, 2008), www.wibilex.de.
- Leuenberger, Martin, *Segen und Segenstheologien im alten Israel. Untersuchungen zu ihren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n Konstellationen und Transformationen* (AThANT 90; Zürich: TVZ, 2008).
- Levinson, Bernnard M.,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as the Source for the Canon Formula in Deuteronomy 13:1", *JAOS* 130 (2010), 337-347.
- Levinson, Bernnard M., "Die neuassyrischen Ursprünge der Kanonformel in Deuteronomium 13,1", Stefan Beyerle / Axel Graupner / Udo Rütterswörden (Hg.), *Viele Wege zu dem Einen. Historische Bibelkritik-Die Vitalität der Glaubensüberlieferung in der Moderne* (BThSt 12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23-59.
- Liverani, Mario, "Shamshi-ilu, Ruler of Hatti and Guti, and the Sefiré and Bukan Stele", Daniela Bredi et al. (eds), *Scritti in onore di Bianca-maria Scarcia-Amoretti* (Rome: Università di Roma, 2008), 752-762.
- Luckenbill, Daniel David, "Campaign against the Arabs. The Cylinder C", *ANET*, 298-301.
- Malul, Meir, *The comparative method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legal studies* (AOAT 227; Kevelaer: Butzon & Bercker, 1990).
- McCarthy, Dennis J., *Treaty and Covenant. A Study in Form in the Ancient Oriental Documents and in the Old Testament* (AnBib 21; Rome: Biblical Institute, 19782).
- Moran, William L.,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BQ* 25 (1963), 77-87.
- Morrow, William S., "Cuneiform Literacy and Deuteronomic Composition", *BiOr* 62 (2005), 204-213.
- Müller, Hans-Peter, "Die Inschrift des Königs Kilamuwa von J'DJ (Sam'al)", *TUAT* I/6 (1985), 638-640.
- Nielsen, Eduard,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Mohr, 1995).
- Oeming, Manfred, "Ich habe einen Greis gegessen'. Kannibalismus und Autophagie als Topos der Kriegsnotschilderung in der Kilamuwa-Inschrift, Z. 5-8,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N* 47 (1989), 90-106.
- Otto, Eckart, "Treueid und Gesetz. Die Ursprünge des Deuteronomiums im Horizont neuassyrischen Vertragsrechts", *ZAR* 2 (1996), 1-52.
- Otto, Eckart,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 Parpola, Simo / Watanabe, Kazuko (Hg.),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2; Helsinki: Helsinki Univ. Press, 1988).
- Podella, Thomas, "Notzeit-Mythologem und Nichtigkeitsfluch", Bernd Janowski / Klaus Koch / Gernot Wilhelm (Hg.),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Internationales Symposium Hamburg 17.-21. März 1990* (OBO 129;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3), 427-454.
- Ponchia, Simonetta, "The Neo-Assyrian Adê Protocol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Empire", Salvatore Gaspa et al. (Hg.), *From Source to History: Studies on Ancient Near Eastern Worlds and Beyond: Dedicated to Giovanni Battista Lanfranchi on the Occasion of His 65th ... 23, 2014* (AOAT 412; Münster: Ugarit Verlag, 2014), 501-525.
- Radner, Karen, "Assyrische tuppi adê als Vorbild für Deuteronomium 28,20-44?", Markus Witte, et al. (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 (BZAW 36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351-378.
- Ramos, Melissa, "A Northwest Semitic Curse Formula. The Sefire Treaty and Deuteronomy 28", *ZAW* 128 (2016), 205-220.
- Riva, Rocío Da, *The Neo-Babylonian Royal Inscriptions. An Introduction* (GMTR 4; Münster: Ugarit Verlag, 2008).
- Rössler, Otto, "Die Verträge des Königs Bar-Ga'yah von Ktk mit König Mati'Il von Arpad (Stelen von Sefire)", *TUAT* I/2 (1983), 178-189.
- Scharbert, Josef, 𐤁𐤍𐤁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808-841.
- Schottroff, Willy, *Der Altisraelitische Fluchspruch* (WMANT 3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Schuler, Einer von, "Notzeit", Hans Wilhelm Haussig (Hg.), *Wörterbuch der Mytholog*, Bd. I (Stuttgart: Klett-Cotta, 1965), 188-189.
- Schuler, Einar von, "Staatverträge mit dem Hethiterreich", *TUAT* I/2 (1983), 131-134.
- Seitz, Gottfrie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Kohlhammer, 1971).
- Soden, Wolfram von, "adû I" (AHw 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14.
- Soden, Wolfram von, "māmītu(m)" (AHw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599-600.
- Soden, Wolfram von, "rikis/štu, riklitu" (AHw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984.
- Soden, Wolfram von, "riksu(m)", (AHw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984-985.
- Starke, Frank, "Zur urkundlichen Charakterisierung neuassyrischer Treueide anhand einschlägiger hethitischer Texte des 13. Jh.", *ZAR* 1 (1995), 70-82.
- Steymans, Hans Ulrich, *Deuteronomium 28 und die adê zu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5).
- Tadmor, Hayim, "Treaty and Oath i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ian's Approach." Gene M. Tucker / Douglas A. Knigh (ed.), *Humanizing America's Iconic Book. Biblical scholarship in North America 6*. Chico (Chicago: Scholars Press, 1982), 127-152.
- Thissen, Heinz J., "Die Lehre des Anchscheschonqi", *TUAT* III/2 (1991), 251-276.
- Thissen, Heinz J., "Die Lehre des P. Insinger", *TUAT* III/2 (1991), 280-319.
- Tropper, Josef, *Die Inschriften von Zincirli. Neue Edition und vergleichende Grammatik des phonischen, sam'alischen und aramdischen Textkorpus* (ALASP 6; Münster: Ugarit Verlag, 1993).
- Veijola, Timo, Art. "Segen/Segen und Fluch, II. Altes Testament" (TRE 31;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76-79.
- Watanabe, Kazuko, *Die adê-Vereidigung anlässlich der Thronfolgeregelung Asarhaddons* (BaghM Beih. 3; Berlin: Gebr. Mann, 1987).
- Watanabe, Kazuko, "Segenswünsche für den assyrischen König in der 2. Person Sg.", *Acta Sumerologica* 13 (1991), 347-387.
- Watanabe, Kazuko, "Segenswünsche für den assyrischen König in der 2. Person Sg. (2)", *Acta Sumerologica* 14 (1992), 369-377.
- Watanabe, Kazuko, "Esarhaddon's Succession Oath Documents Reconsidered in Light of the Tayinat Version", *Orient* 49 (2014), 145-170.
- Watanabe, Kazuko, "Prince of the Orient.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 Nakata et al. (eds.), *Prince of the Orient: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Memory of H. I. H. Prince Takahito Mikasa* (Orient Suppl. 1; Tokyo: Shams Company, 2019), 237-257.

- Weidner, Ernst F., *Politische Dokumente aus Kleinasien. Die Staatsverträge in akkadischer Sprache aus dem Archiv von Boghazköi* (Boghazköi-Studien 8; Leipzig: Hinrichs'sche Buchhandlung, 1923).
- Weinfeld, Moshe, "Traces of Assyrian Treaty Formulae in Deuteronomy", *Bib* 46 (1965), 417-427.
-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Weinfeld, Moshe, "Covenant Terminolog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ts Influence on the West", *JAOS* 93 (1973), 190-199.
- Weippert, Manfred, "Die Kämpfe des assyrischen Königs Assurbanipal gegen die Araber. Redaktionskritische Untersuchung des Berichts in Prisma A", *WO* 7 (1973), 39-85.
- Wilhelm, Nebe, G., "Bemerkung zur alt-aramaischen Inschrift aus Bukan", *Mediterranean Language Review* 15 (2003-2004), 181-183.
- Wiseman, Donald J.,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Part I", *Iraq* 20 (1958), 1-99.
- Zehnder, Markus, "Building on Stone? Deuteronomy and Esarhaddon's Loyalty Oaths (Part 1).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BBR* 19 (2009), 341-374.
- Zehnder, Markus, "Building on Stone? Deuteronomy and Esarhaddon's Loyalty Oaths (Part 2). Some Additional Observations", *BBR* 19 (2009), 511-535.

검색어

신명기
에사르하돈의 왕위 계승 조약
축복
저주
고대 근동 문헌

A Study on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Influencing the Motif of 'Blessings' and 'Curses' in Deuteronomy 28: Focused on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and Three Aramaic Inscriptions

Keung-Jae Lee

Lecturer at Mokwon University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 Bethel, Dr. Theol.

The motif of blessings and curses found in Deuteronomy 28 was influenced by the various regions and tradi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rigin of the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 in regard to the various blessings and curses found in Deuteronomy 28 and to confirm the Old Testament theological view of the blessings and curses mentioned in Deuteronomy 28.

First of all, as evidenced by various types of literatur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blessing motif has a long history that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Sumerian city-state era. However, the content of the blessings mentioned in Deuteronomy 28 is quite normal compared to the ancient Near Eastern blessing motifs. In contrast, the ancient

Near Eastern blessing motifs contain the mythical content of facing God or the political content of prosperity of the kingdom.

The curse motif in Deuteronomy 28 was also influenced by various ancient Near Eastern regions and traditions. The discovery of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EST) greatly influenced the study on the curse motif in Deuteronomy 28. For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urses of Deuteronomy 28:20-44 and those of EST § 56, for example, a combination of shared motifs, sequence, and structural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documents, demonstrate a direct impact from EST. The 'cannibalism' curse motif in Deuteronomy 28:53, 55, 57 was influenced by EST §§ 47, 69, 75, and 76 which inherited the Assyrian tradition. And the curse motif of 'not obtained,' which affected Deuteronomy 28:31, 33, 38-40, 42, is already confirmed in the three Aramaic inscriptions between the 9th and 8th centuries B.C. This curse motif is rooted in the Hittite mythology recorded around 1500 B.C. Nevertheless, the theological reinterpretations of the curse motif by Deuteronomy 28 itself can be found. For example, the so-called 'ritual curses' in EST (§§ 59-67) are not identified in Deuteronomy 28. It is perhaps because Yahweh religion strictly forbids witchcraft and magic.

Keywords

Deuteronomy
Esarhaddon's Succession Treaty
blessings
curses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 투고일: 2020년 4월 15일
- 심사일: 2020년 5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